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일반부 - 우수상 >

작품명	천년의 사랑
-----	--------

조 정 아

주제	현재의 삶이 끝나면 곧 내세(來世)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순장처럼 내세에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본질을 그리고 싶었음.
기획의도	가야는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가야, 고구려, 신라, 백제)를 이끌었던 맹주국이었고, 한때는 신라보다 더 번성한 세를 누리던 나라였다던 가정하에서 그 시기를 살았던 역사속 인물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리고 싶었다.
등장인물	
등장인물명 1	동현
사학교수이자 문화재 발굴가. 과거의 우륵.	
등장인물명 2	정민
고령초등학교 교사이자 한때 역사학도. 과거의 월광태자(*도설지왕)	
등장인물명 3	탄금
과거 월광태자와 우륵이 사랑했던 여인. 동현을 먼 과거에 천착하게 만드는 존재	
줄거리	
<p>젊은 사학자 석동현은 자신의 연인이자 방송국 PD인 혜진이 새로운 가야 무덤터가 발굴됐다는 말을 하자 부랴부랴 경북 고령으로 떠난다.</p> <p>사학계의 아이돌 스타답게 그는 이미 문화재 발굴시 지자체와 학계, 업체와의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비 후원까지도 잘 받아내는 수완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새로 발견된 고분터가 낯설지 않고 어떤 기시감까지 드는 것에 이상해 하면서도 발굴 작업에 의욕을 보인다.</p> <p>이 곳에는 그의 대학선배이자 가야 연구를 하는, 그러나 논문 파동 이후 고향에 은거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김정민이 있다. 그를 찾으러 간 학교에서 어릴 때의 추억을 떠올리는 동현. 그 곳에는 어릴 때 친했던 어느 여자 아이에 대한 추억이 서려있다. 추억에 잠긴 동현은 우연히 음악 선생님인 허은수를 만나게 되고... 드디어 끌려온 인연, 김정민을 만나게 된다. 발굴 작업은 난항을 거듭하고... 그 와중에도 은수를 사랑해 저돌적으로 다가서는 동현과 은수를 사랑하나 고백할 용기 없는 정민의 관계는 가야 고분 안에 있던 미라와 부장품들이 발견되면서 전환을 맞이한다.</p> <p>부장품인 두루마기 천에 적힌 글귀는 바로 정민 모가 읊던 그 방언과 일치한다. 그리고 정민 모의 입을 빌어 몇천 년에 걸친 인연의 실타래들이 하나하나씩 풀려 나가기 시작하는데...</p> <p>** 우륵의 가야금 12악장처럼 12개의 에피소들을 나름의 기준으로 나눠 엮어 보았다.</p>	

작 품 본 문

< 1장 - 귀향 >

알람시계가 울렸다. 알람벨과 동시에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여자 진행자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웅얼대는 라디오 소리에도 침대에 엎어져 있는 동현은 움직일 줄 몰랐다. 동현이 누운 침대 옆 벽면에 흰 침의를 입은 채 옆으로 비스듬히 서 있는 여인이 그려진 그림 액자가 걸려 있다. 경쾌한 진행자의 하이톤이 라디오에서 흘러 나왔다.

“요즘 밤하늘을 보면 유난히 빛나는 별이 있는데요, 이것은 별이 아니라 화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와 가까워지고 있는 이 화성이 지구와 가장 근접한 시점은 8월 27일 오후 6시 51분인데요, 그때 하늘에서는 마치 두 개의 달이 뜬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앞으로 12일이 남은 이 지상 최대의 미스터리 우주쇼가 펼쳐지는....”

핸드폰 벨이 따르릉 울렸다. 동현이 귀찮다는 듯이 획 던져버리자 이번에는 집전화가 울렸다. 받지않자 자동응답기로 넘어갔다. 약간 신경질을 참는 듯한 목소리.

“동현 선배, 정말 이러기야... 어서 받아.... 집에 있는 줄 다 알거든?”

동현이 부스스 일어나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갓 여섯시를 넘긴 새벽임을 깨달은 동현은 찌푸리며 ‘아, ... 너무 달렸네. 아이고 머리야.’ 하며 머리를 싸매 쥐었다.

“빨리 고령으로 내려가 봐... 대단한 게 나타났어.”

‘호들갑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딴다고 맨날 특종이래... 누가 피디 아니랄까봐...’ 동현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혜진의 목소리에 몸이 굳어졌다.

“선배가 맨날 노래하던 그 하얀 옷의 고대 여인.... 거기 오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대단하다고 하네. 엄청 넓은 가야 순장고분터가... 발굴됐다고 해. 왕, 왕비, 시녀... 심지어 아이도 묻혀 있다네? 누가 알아? 거기 가면 그 고대 여인 때문에 생겼다면 그 지긋지긋한 불면증과 악몽을 떨쳐 버릴지...?”

재빨리 손에 대강 걸리는 점퍼 하나만 들고 동현이 획 뛰어나갔다. 하얀 침의를 입은 여인의 그림 위로 여명이 비쳤다. 갑자기 액자가 기우뚱거리며 수평귀가 어긋났다.

고령군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위를 비가 세차게 퍼붓고 있었다. 한 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시계를 바라보며 동현의 표정없는 눈빛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에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교통방송을 맞추려 했지만 치지직- 잡음만 들릴 뿐 방송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았다. 그때 와이퍼를 작동해도 금새 흥건해진 빗물로 희부옇한 정면 유리창 너머로 불쑥 하얀 뭔가가 스쳐 지나갔다. 난데없는 지장물에 획 운전대를 옆으로 꺾은 동현은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다시 운전대를 고쳐 잡고 백미러로 주변을 살펴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동현의 차 뒤로 하얀 치맛자락 아래 맨발로 서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환영처럼 서 있음을 동현은 알지 못했다.

< 2장 - 재회 >

울긋불긋 페인트칠이 여기저기 썩여진 다 허물어져가는 건물들이 재개발 지역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오색실을 하얀 한복 허리춤에 감고 있는 귀남이 약간 혼이

빠진 듯한 모습으로 건물의 무너진 잔해를 뒤졌다.

“쉬엄 쉬엄 하소.” 염섭이 귀남의 이마에 송글 맺힌 땀방울을 닦아 주었다.

“와? 부끄럽소?”

“암은... 부끄러비라. 아들 아가 핵교 쌤인데... 이래 부모라는 사람이 거렁배이처럼 뭘 자꾸 좇으면 쓰겠나?”

염섭이 망태기를 털썩 던지자 쓸만한 페트병과 고추장통 등 플라스틱까지 쓸어담던 귀남이 갑자기 서늘한 표정을 지었다. 어딘가를 한참 보더니 달려가서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이상한 광채가 났다.

“나물이가? 뭘데... 그리 파 제끼노?”

귀남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형형한 눈빛으로 호미질을 힘차게 하는 귀남의 얼굴은 귀기마저 어린 듯 이상했다. 세차게 파다가 호미의 목이 부러지자 갑자기 귀남이 호미를 던져버리고 손으로 파기 시작했다. 염섭이 기겁하며 아내의 손을 붙잡았다. 귀남이 초점없는 눈빛으로 ‘헤헤헤-’웃으며 침까지 흘렸다.

“이 사람이 와 이카노? 임자... 아 보소, 임자!”

염섭이 귀남의 뺨을 때리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아내를 급하게 업고 몸을 일으킨 염섭의 눈에 귀남이 파헤친 땅 속에서 뭔가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얼핏 봐도 사기그릇 같기도, 항아리 같기도 한 물건이었다. 그 물건을 본 염섭의 얼굴마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 시각, 염섭과 귀남의 아들 정민은 자기가 근무하는 고령 초등학교 교정을 걷고 있었다. 밝은 대낮에 갑자기 컴컴한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의아하게 바라보던 정민의 귀에 가야금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우물의 어둠 속에서 울리는 듯했다. 우물은 가야 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이었다. 마치 가까이 하기 싫은 곳에 누군가의 힘에 의해 끌려 들어가듯 뻗뻗이 어정으로 이끌려 가던 정민이 어둠이 고인 우물 바닥을 바라보았다.

바가지로 어정의 물을 길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려진 두레박을 치켜든 정민은 악-하고 비명을 내지르며 바가지를 내던졌다. 맑은 물이 아니라 시뻘건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다.

실상 그것은 정민의 꿈이었다. 점심 시간 교무실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옆드려 있는 정민을 은수가 안타깝게 쳐다보았다. 수업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은 은수는 정민의 수업시간표를 보며 그가 다음 수업이 없음을 알았다. 다른 교사들과 함께 사라졌던 은수가 조금 후 다시 적막한 교무실에 들어왔다. 살짝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민의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 주었다.

고령에 도착하자마자 감쪽같이 비가 그친 날씨를 투덜거리며 고령초등학교에 동현이 들어섰다. 정문에 ‘103년의 전통이 서린 곳, 대가야의 얼이 서린 곳_고령초등학교’라는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보던 동현이 학교를 어슬렁거리며 둘러봤다.

24년 전 어린 동현이 이 곳 놀이터 근처에서 어떤 여자 아이와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여자 아이가 웃자 어린 동현도 따라 웃었다. 여자 아이가 모래성을 무너뜨리면 동현도 모래성을 무너뜨렸다. 그때 동현은 다홍빛 한복 저고리 치마를 입고 쪽 진 머리로 교문을 들어오는 한 여인을 보자 얼른 숨었다. 어린 동현의 얼굴이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아이들이 멍하게 입을 벌리고 기생처럼 이쁜 여인을 빙 둘러 바라보고 있었다. 하느작하느작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온 여인이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교단 뒤에 숨은 동현 쪽으

로 쳐다보았다. 어린 동현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동현의 어머니였다. 전학을 위한 학교를 방문한 어머니가 손에 동현을 붙들고 찬찬히 나오자 뒤에서 바라보던 남자 선생 하나가 말했다.

“화신관 월란이가 떠나면 앞으로 무슨 낙으로 사나...참말로 섭섭하데이...”

동현은 멀쩡이 서서 손을 흔들어 주는 여자 아이를 외면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동현아. 친구가 인사하자나? 니도 인사 해라.”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던 동현이 여자 아이를 힐금거리며 말했다.

“싫다. 곧 만날건데 인사는 뭐할라고 하노?”

갑자기 교문 쪽으로 달려가던 동현의 뒷모습을 어머니가 안쓰럽게 쳐다보았다. 그렇게 떠나온 고령이었다.

동현은 운동장 한가운데 어정에 갔다. 우물물을 길던 동현에게 양은 주전자를 든 은수가 걸어왔다. 그녀를 멍하게 바라보던 동현이 여자를 향해 싱긋 웃었다. 은수가 낯선 동현을 경계했다.

“외부에서 오셨나봐요?”

“이 우물물 외부사람도 마셔도 되죠?”

“네... 맘껏 드셔도 돼요.”

“이 우물... 어정 맞죠?”

“네... 가아의 왕들이 마셨다는 우물입니다. 한번 드셔 보세요.”

“왕 아닌데 마셔도 됩니까?”

은수가 픽 웃었다.

“저도 왕비 아닌데 마신 답니다.”

“수질이 깔끔한가요? 전 예비양 생수만 마셔서...”

정색을 하던 은수에게 동현이 씨익 웃자 은수의 경계심도 누그러졌다. 은수가 살짝 망설이다가 바가지로 물을 떠서 동현에게 건네자 목울대를 꿀럭거리며 시원하게 들이켰다.

동현은 은수를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동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은수가 동현의 뒤편을 보고 화사하게 웃기 시작했다. 동현은 정민이 멍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형!”

“네가 웬일이야?”

은수는 의아하게 정민에게 형이라 부른 동현을 쳐다보았다.

“김선배 찾아오신 손님인 줄도 모르고.... 실례가 많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석동현.”

“응... 진짜 오랜만이네.”

“여기는.... 내 후배 허은수 선생님!”

은수의 얼굴에 약간 서운한 빛이 서리는 것을 동현은 놓치지 않았다.

“여긴 내 대학 후배. 유명한 사학자야. 스타야, 스타!”

“칭찬인...거지? 형”

“그럼 두 분 이야기 나누세요.”

사라지는 은수의 뒷모습을 멀거니 보던 동현에게 정민이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바람돌이 석동현. 마수 뺨치지 마라. 착한 여자니까.”

“진짜... 착하게 생겼네. 얼굴도...몸매도...무슨 과목 가르쳐?

“음악 선생님이야. 바이올린 전공. 그런데...어쩐 일이야?”

동현의 몸이 굳어졌다.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몰라서 물어? 대단한 게 발견됐다던데....이 동네에서...”

정민 역시 굳어졌다. 경계의 빛을 띄었다.

“대단해? 어떻게?”

“엄청난 이슈가 될꺼야. 가야시대 순장무덤이 발견된 것 같아.”

“알고 있어. 하나만 부탁하자.”

“알고 있어? 그거 아직 기밀인데...”

“발견한 사람이 나랑 아는 사람이야.”

순간 정민의 얼굴에 씩씩한 표정이 스쳤다. 동현이 고개를 가웃거렸다.

“일반인은 그곳이 순장터인 줄 모를 텐데...그나 저나 뭘 부탁한다는 거야?

“요번 건...순수하게 연구만 해라.”

“알았어.”

“나를 왜 찾아온 거야?”

진지한 동현의 얼굴이 갑자기 짓궂은 표정으로 변하더니 정민의 팔에 매달렸다.

“형이 좀 도와줘.”

“야! 석동현... 나 끌어들이지 마라.”

“소리지르지 마. 어차피 도와줄 거면서...‘가야’에 벌떡 일어났던 사람이 형이잖아?”

정민의 얼굴의 약간 갈등의 빛이 어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싫어. 난 가야...싫어. 네가 혼자 다 해.”

“난 미끼 던졌다. 형은 오랫동안 고민하겠지. 그리고는 덩썩~ 물겠지만...”

동현이 씩 웃으며 교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 동현의 뒷모습을 정민이 쳐다보았다.

재개발 지역 한 켠에 범행 현장의 폴리스라인처럼 하얀 끈들이 쳐지자 안 그래도 을씨년스러운 동네가 더 음산하고 황량해 보였다. 주변은 발굴 인부들로 분주했다. 동현이 SUV 차량을 몰고 현장에 나타나자 다들 ‘이 녀석 뭐야?’라는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무리 중에서 발굴물을 보던 김 박사가 동현에게 다가왔다.

“비까지 내리는데 먼 길 오느라 자네가 고생이 만타.”

“여기에요? 발굴된 순장터?”

애써 담담한 척 했지만 동현의 눈은 주위를 어지럽게 훑쳐보고 있었다.

“발굴은 아직 못 했다. 추정이지만...한 3~5세기 무덤같구마.”

“내부 스캐닝 들어갔어요?”

“알다시피 장비도 열악하기도 하지만 표적조사 먼저 들어가야 한 되겠나?”

“그냥 장도리로 뽐개고, 콥 포크레인으로 밀어 버리죠. 까짓거...”

김 박사가 씨익 웃었다.

“사학계의 아이돌 스타 석동현이답잖게 와 이리 서두르노? 순리대로 하자.”

동현이 목마른지 입술을 혀로 핥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가야 순장고분은 희귀하니까요.”

“혹시 다른 이유 있는 기 아이고?”

“무슨... 뜻이죠?”

“어... 알고 온 거 아냐? 여기 택지개발지구란 거?”

모욕받은 듯 동현이 인상을 찌푸리리다가 확 미간을 펴며 장난스럽게 빙긋했다.

“헤헤! 제가 아무리 돈을 좋아하기로서니 설마 문화재 갖고 장난질 치겠습니까?”

“내일 저녁에 여기 개발사업자랑... 이 부지 주인이라나 뭐라나 하는 어느 사학재단 이사장이랑 술 약속 잡혀있다. 진짜 몰랐나?”

“언론사는요?”

“왜 불러주까?”

“박사님... 진심이에요. 요번 발굴 건에는 똥파리들이 좀 안 꼬였으면 해서요.”

진지한 동현을 서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김 박사가 동조하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웬일이고? 학자로서의 양심이냐?”

“그딴 건 모르겠고.... 그냥 요번 건은 그냥 연구만 하고 싶어서요.”

“그나저나 인력이 떨어져서... 지역 사학회에도 도움을 요청했네. 지방대 교수들도 몇 올거야.”

“제가 추천할 인물이 있는데... 박사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김정민 군인가?”

동현이 의아해하자 김 박사가 동현의 눈을 슬쩍 피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우리 역사 뜯어먹고 사는 사학회에서 김정민 모르면 간첩이라... 논문 사건은 꽤 큰 이슈였잖나? 정통 사학회에 반기를 든 사건 아이가?”

“삼국사기에 남겨진 기록은 신라 중심의 기술이어서 고구려 뿐만 아니라 가야에 대해 기록도 훼손되거나 축소된 왜곡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기록이 기껏 백제와 티격태격하거나 중국 유목민하고 싸웠다는 기록이 고작인 삼국사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데서 가야의 역사를 재조명하자는 것이 정민형의 논리였고... 어느면에서는 꽤 씨알도 먹혔었죠.”

“정민군이 그 주장때문에 학계에서 파문당했고... 그리고...”

김박사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보수학회에서는 좀 파격적인 주장이긴 했다. 가야가 실제 삼국시대, 정민 군 표현대로라면 사국시대에서도 맹주의 역할을 하던 강국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에는 너무 나갔다 아이가?”

“황당하지만...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어차피 머나먼 옛 역사에 대해 또렷한 문헌도 없다면... 가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 가야가 하나의 왕국으로서 고구려, 신라, 백제와 대등한, 아니 그 이상의 세력을 가졌었다면? 만약 가야를 중심으로 사국이 통일되었다면? 만약 가야의 마지막 왕 도설지 혹은 월광태자에 의해 가야가 다시 일어섰다면?”

김 박사의 실소를 흘리다가 동현을 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자네는 정민 군의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지... 그리고 결정적은 반론증거를 낸 사람도 자네였잖나?”

동현의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다. 김 박사가 매듭짓듯 중얼거렸다.

“서로 살이 켜나? 와 못 잡아 먹어 안달이고? 자네는 여 연고도 없으면서리...”

김 박사와 화신관 입구에 들어선 동현이 퇴락한 간판을 바라보았다. 현판 글씨가 다

지워진 화신관 초입에 알록달록한 네온싸인 간판이 조악하게 서 있었다. 김 박사가 동현의 허리를 쿡 찔렀다. 내키지 않으면 돌아가라는 표시였다.

“제가 이런 거 전담인데... 안 가면 안되죠?”

“허긴... 자네는 영업을 잘 뛰지...학자답잖게...”

“박사님은 타인에 대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타인의 빛과 그림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남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는 법이죠.”

“자네가 이 술판에 기꺼워하지 않는다는 건 내 알아줄세. 허나 그동안 연구개발비 타내려고 요정에서 자네가 탁월하게 영업을 댄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

김 박사가 기분이 상한 듯 뒤돌아 서서 가려하자 동현이 조용히 붙잡았다.

“제 고향도 고령입니다. 이 화신관은 어릴 때 살던 집입니다. 어머니가 꽤 유명짜했던 화신관 기생, 월란이었지요.”

말을 마친 동현이 화신관으로 들어갔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중년 여인이 안내해 준 방으로 가자 재개발 업자 김주생과 땅주인인 사학재단이사장 김매생이 동현과 김 박사를 맞이했다. 이들은 이종사촌간이었다. 노회해 보이는 김주생이 동현에게 잔을 건네자 동현이 공손히 술잔을 받아 획 들이켰다.

“하하... 아주 기분이 좋아요. 흔히 학자라면 쾡-한 쾡생원이나 딱-막힌 벽창호같은 스타 일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오늘 석교수를 보고 내 생각이 아주 단단히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김 박사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진즉에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지....내 우리나라 역사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안 열까?”

“아이고... 사장님... 제가 천군만마를 얻은 듯 합니다. 우리나라 사학계만큼 돈이 안 도는 곳도 없거든요. 든든하게 누가 딱 후원해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릅니다. 전문 장비없이 불도저와 포클레인으로 발굴하다보면 문화재도 훼손되고.. 일껏 파 헤쳐놓은 문화재는 인력이 없어 버젓이 도굴꾼한테 도난도 당하거든요.”

그때였다. 정민과 은수가 방에 들어섰다. 동현은 그제서야 김매생이 고령초등학교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정민의 표정은 어두웠다. 은수가 눈치보며 들어섰다.

“허선생 왔어? 일루... 석동현 교수 옆에 앉아.”

은수가 자존심 상한 표정으로 동현의 옆에 앉았다.

“김 선생까지 올 건 없었는데... 난 허선생만 불렀는데...”

“잘 모르시군요. 여기 김선배가 가야 연구 일인자시잖아요. 합류해 주시면 발굴작업은 꽤 빨라질 겁니다.”

“그런가? 하하... 이젠 딱딱한 얘기 그만두고... 여봐라!”

한복입은 젊은 여인들 몇몇 가야금을 든 채 들어왔다. 가야금 연주가 시작되든 말든 불과니 취한 김매생과 김주생이 옆의 기생들을 주물럭거리기 시작했다. 은수가 그 모습을 보고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술잔을 쥔 정민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금방이라도 일어날 태세였다. 그때 김매생이 덩실덩실 춤 추다가 은수 쪽으로 다가왔다.

“허선생... 껏껏이 한번 켜봐. 우리 허선생님이 바이올린 전공자 아십니까? 어서...”

마지못해 일어난 은수가 바이올린으로 베토벤의 ‘월광곡’을 켜다. 고혹적인 표정으로 연주에 집중하는 은수의 곁으로 김매생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추태를 부렸다.

정민이 벌떡 일어났다. 그런 정민을 김매생이 꼴같잖다는 듯 노려봤다. 그때-

“아이고.. 우리 이사장님... 기분 좋으시구나? 제가 가야금 한 곡조 탈까 하는데...”

“자네가? 가야금을? 오케바리.. 좋아.. 좋아...레디...고!

유들거리는 낮빛이 사라지고 진지한 모습으로 동현이 가야금을 탔다. 천천히 줄을 뜯기 시작하며 흘러나오는 곡조는 빠르면서도 은근히 애달팠다. 가락에 빠진 사람들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모두의 얼굴에 감탄의 빛이 떠올랐다.

< 3장 - 기억 >

화신관 바깥으로 울려 퍼지는 가야금 가락에 달빛이 묘하게 반짝거렸다. 같은 시각 발굴된 순장터 주변으로 묘한 공명이 드르륵 울리기 시작했다. 점점 강력한 진동까지 동반한 소음은 무덤 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스르륵 달빛이 무덤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고분의 외실을 지나 내실까지 비출 듯한 밝은 빛이었다. 뭔가를 웅얼거리는 사람들의 목울음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형겅으로 돌돌 쌓여져 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조금씩 움직였다.

그 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산발머리에 맨발로 달려온 귀남이었다. 염섭이 그런 귀남의 뒤에 헐레벌떡 다가와 섰다.

“그들이 깨어 났는기라. 하지만 정민이는 아직 모르는데... 갈쳐줘야 되는데...”

“스스로 알끼다. 우리가 그랬듯이...”

귀남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 환한 달을 보며 방언처럼 두서없는 말을 내뱉었다.

“타는 듯한 달빛이 두 개가 되는 날 그들이 다시 살아나 우리 곁으로 오리라, 가나의 음악이 잠든 그들을 깨우면 새로운 이야기가 그들을 안식케 하리라.”

귀남이 털썩 쓰러졌다. 그런 귀남을 염섭이 안으며 한숨을 토했다.

술에 취한 동현을 호텔방에 데리고 온 정민은 잠든 동현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정민이 이불을 덮어주고 나가려고 할 때 동현이 엮어진 채 웅얼거렸다.

“형, 나 아직도 원망하지? 오랜 프로젝트를 망치고 낙향하게 만든 건 나였잖아.”

“오래 준비한 내 프로젝트를 망친 건 바로 나야. 내 확신이 부족해서야.”

“그거 알아? 난 늘 형한테 열등감을 가졌어.”

“나같은 거 한테...천하의 석동현이... 고맙다. 나 갈게!”

“여기... 혜진이도 와 있어. 한때 형의 여자였던...”

“혜진이...나를 먼저 만났을 뿐, 너를 더 좋아했어. 죄책감 혹시 있다면 버려라.”

“허 선생에 대한 형의 마음은 뭐야?”

“내가 대답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좋아한다면... 분명히 형도 좋아할테니까...”

그 때 혜진이 들어섰다. 동현의 말에 살짝 찌푸리고 있던 정민이 혜진을 보자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며 사라졌다.

반라로 엮드린 혜진의 등을 바라보던 동현이 어둠 속에서 담뱃불을 붙였다. 어둠 속에서 달빛이 교묘히 흘러들어와 둘의 실루엣 여지없이 드러났다. 창으로 약간 찌그러졌지만 유난히 밝은 달이 보였다. 그때 동현은 ‘월광곡’을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다.

“그리운 사람의 모습이 달이 되어 부활한다, 머리칼 하나 만지지 않고 떠나간 옛 사람을 생각한다, 소녀의 꿈 속에 달빛이 스며든다, 소녀의 심장이 달을 잉태한다, 소녀의 잠

든 육체에서 달빛이 퍼져 나간다.... 조지훈 시인의 '월광곡'이라는 시야.

지금 동현씨 표정이 딱 그래. 달빛 속에서 다른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느낌? 아니다. 여자를 만지고 있는 느낌?”

“사건담당 피디 아니랄까봐?”

“이건 피디의 육감이 아니라 여자의 육감이거든.”

“혜진아... 이번 일 맡은 거 나... 후회해. 왠지 두려워.”

혜진이 침대에 내려와 동현을 가만히 껴안았다.

“나도 모르는 것들을 마주칠 용기가 아직은 없어.”

어둠 속이었다. 발굴된 순장터에 누군가가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동현이었다. 동현은 자신의 눈 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 앞에 한 남자가 행복한 표정으로 가야금을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왕인 듯한 남자와 왕비인 듯한 여자가 쳐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 광경이 사라지고 불타는 궁궐이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적에게 살육당했다. 좀 전에 행복하게 가야금을 타던 남자가 싸늘하면서도 무덤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자가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 곳에 왕인 듯한 자가 갑옷을 입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동현은 슬픈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 동현의 곁으로 어떤 여자가 스르르 다가와 울기 시작했다. 울음을 멈추고 여인을 바라본 동현은 소스라쳤다. 그녀는 은수였다. 동현을 바라보는 은수의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버둥거리며 잠에서 깨어난 동현은 땀으로 뒤범벅이었다. 배에 걸쳐진 혜진의 다리를 밀어낸 동현은 한참을 앉아 긴 호흡을 내쉬었다. 그 때 동현의 귀에 가야금 소리가 들렸다. 연주음은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했다.

거리를 헤매는 동현은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거리를 헤매는 동현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연주음 역시 빠르고 점점 선명하고 또렷해졌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접어든 시장에서 동현은 보고야 말았다. 그곳에 은수가 있었다. 시장 좌판 아래 카바이트 불빛 뒤로 일렁거리는 은수의 얼굴을 미혹당한 듯 동현이 쳐다보았다. 장을 본 은수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교묘한 달빛 아래 시골길 위로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은수의 그림자를 밟던 동현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거 알아요? 나 정민형이 사귀던 여자들과 다 사귀었는데...”

깜짝 놀란 은수가 뒤돌아 보더니 경계했다.

“당신도 내 매력에 어서 빠져야 할 텐데...”

건들거리며 말을 건네던 동현을 알은 채 하지 않던 은수가 걸음을 빨리하기 시작했다. 그런 은수를 뒤따라가 돌려세운 동현은 걱정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당신... 누구야? 왜 내 마음을 혼드는 거야? 네가 뭔데... 네가...”

동현을 떠밀어 버리고 따귀를 때리는 은수의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벌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내 서늘하게 변했다.

“김선배 사랑해요. 그 사람에 비하면 당신 천박하고 졸렬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뛰어가는 은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현의 눈에 슬픔이 가득 찼다. 다시 호텔방에 돌

아온 동현은 조용히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잠든 혜진의 몸을 뒤에서 가만히 껴안았다.

“바람 난 고양이처럼 어딜 다녀오는 거야?”

“아까 그 시 다시 외워줘.”

“월광곡? 졸린데... 그리운 사람의 모습이 달이 되어 부활한다. 머리칼 하나 만지지 않고 떠나간 옛 사람을 생각한다....소녀의 잠든 육체에서 달빛이 퍼져 나간다.”

혜진은 왠지 이상한 느낌에 들었다. 뒤돌아 본 동현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 4장 - 전언 >

귀남이 신열을 앓고 있었다. 염섭이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면서 근심스레 쳐다보았다.

“그니들이 오고 있심더.”

“임자! 우리는 이미 다른 몸을 빌어 태어난 다른 사람인가라. 고마 잊어뿌자.”

“잊을 수 있을까나? 전생에서 빚진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임자한테 다시 와.. 이렇게 속죄하며 살아가는 그기만으로는 안 되는 기라?”

“빨리 아르켜줘야 되니더. 풀지 못한 전생의 업을 풀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카이. 쉬... 그니들이 오고 있니더.”

발굴 작업으로 순장터는 시끄러웠다. 자외선 차단 고글을 낀 동현이 일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성격이 다른 시위대가 나뉘어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한쪽 시위대는 ‘산업발전 가로막고, 시민재산 축내는 문화재 발굴팀은 해체하라’라는 피켓을, 한쪽은 ‘문화와 역사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라는 피켓을 든 시민단체 시위대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시위대의 모습을 혜진이 곁에서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큐 사인을 보내자 기자가 멘트를 했다.

“현재 고령 가야 고분 발굴은 답보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자체와 학계에서는 발굴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충원 및 물적 지원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발굴로 드러난 석실이 붕괴될 우려마저 제기된 상태이고, 지식마저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자 곁으로 눈빛이 형형한 귀남이 쓰윽- 하고 지나갔다. 혜진이 직감적으로 그림을 담기 위해 카메라 기자한테 손짓을 하는데 동현이 만류했다.

“정민형 어머니야. 이 동네 당골이래. 형 아버지는 박수무당이시고...”

“당골이면... 무당? 그런데 왜... 저렇게 계시는 거야?”

“이 순장터 최초 발견자가 바로 정민형 어머니야.”

두려운 표정으로 차마 바리케이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던 귀남이 중얼거리며 곳을 하기 시작했다. 염섭이 묵묵히 귀남의 뒤에서 북을 두드렸다. 동현이 눈짓을 했지만 혜진이 카메라에 담도록 사인을 건넸다. .

“네 이 놈들아! 가나의 영혼들을 가만 몬 두나?” 귀남의 새된 목소리였다.

“가나?”

“가야의 옛 명칭이지.”

곳을 펼치던 귀남이 획 둘러보다가 동현과 혜진 쪽으로 다가왔다. 어떤 기운에 취해 귀남은 눈을 번득이며 거침없이 말들을 쏟아냈다.

“타는 듯한 달빛이 두 개가 되는 날 그들이 다시 살아나 우리 곁으로 오리라. 가나의 음악이 잠든 그들을 깨우면 새로운 이야기가 그들을 안식케 하리라.”

“저건... 하늘의 말을 옮기는 무당의 전언이야.”

동현과 혜진을 빙글 돌던 귀남이 갑자기 동현을 끌어안았다. 웬지 동현은 저항없이 순순히 안겼다.

“가없는 것... 이승을 떠나지도 못하고...”

동현도 마치 따라 올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때 정민이 나타났다. 두려워하듯 염섭이 귀남을 동현에게서 떼어 데려갔다. 동현의 눈동자가 습벅거렸다.

“합류할게. 단 조건이 있어. 가야 유적지 발굴이 끝나면 보존을 위해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을 상대로 설득에 들어가야 해. 이 유물 하나라도 버릴 수 없어.”

“나도 버릴 생각이 없어. 혼자 마을과 가야를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은 마.”

“이사장에게 최소한의 발굴장소로 한정한 후 발굴을 하겠다고 속였어. 최대한 빨리 구하자구. 어차피 그들을 설득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발굴단원 한명이 ‘또다른 지석을 발견했다’고 외쳤다. 정민과 동현, 혜진이 그 곳으로 달려갔다.

흙으로 덮인 검은색 지석이였다. 정민이 지석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자 글자가 눈에 띄었다. 그 글을 읽던 동현과 정민이 얼어붙은 듯 서로를 쳐다보자 혜진은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형네... 어머니가... 말씀하신... 전언이랑 똑같잖아?”

< 5장 - 비밀 >

잠든 귀남의 얼굴이 창백했다. 염섭이 말없이 간호를 하고 있었다. 정민이 죄책감어린 표정으로 귀남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신 거 알려 주셨어야죠?”

“못난 자식이라니...니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숙인가 모르고 있네이.”

“아버지... 어머니가 전한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을 끼다. 곧 알게 될 테니까...가라. 음마도.. 아부지도... 이젠 쉬고 싶네이...”

평상에 앉은 동현과 은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감지한 혜진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혜진이 다소 무례한 태도로 은수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다.

“지역민으로서 가야 고분이 발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이 오히려 불쾌해 하며 만류했지만 은수는 고집스럽게 카메라를 들이댔다. 하지만 은수의 눈빛은 차리리 고요했다.

“고령은 한때 대가야의 땅이었어요. 금관가야가 그 비열한 신라에 저항을 포기하고 왕족마저도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되어 호화로운 노예의 삶에 만족하고 노예의 영혼을 향유한 그 순간에도 우리 대가야는 싸웠습니다.”

그때 혜진은 카메라 뷰 파인더에 나타난 어떤 여인의 환영에 화들짝 놀라 카메라에서 눈을 뗐다. 하지만 은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카메라를 들여다보던 혜진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때, 다소 수줍어하던 은수의 말투가 확신에 찬 말투로 변했다.

“맑고 깊은 가야의 영혼을 위해, 통일이라는 가야의 웅대한 꿈을 위해 마지막 왕이었던

도설지, 즉 월광태자께서는 죽음으로써 가야를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가야는 결국 망했잖아요?” 비꼬듯 동현이 말했다.

“가야의 정신은 망하지 않았습시다. 외세를 등에 입고 결국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정신이 척박하고 뿌리없음은 문헌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가야 문헌보다는 신라 문헌이 더 많이 전해 내려 오고 있죠.”

“신라의 문헌들은 각 문헌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폐기되고 수정된 흔적들이 또렷합니다.”

“정민 형 애인이어서 그런 건 이해하는데.... 역사 왜곡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혜진이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은수가 확신에 차서 소리쳤다.

“당신 역시 가야를 무너뜨리려고 신라에 빌붙은 낯고 음흉한 가야 구신들같은 신라의 앞잡이와 다를 바 없군요.”

정적이 흘렀다. 그때 정민이 나왔다. 고개를 떨어뜨린 정민의 팔을 부여잡는 은수를 동현이 미칠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 6장 - 부활 >

귀남이 깨어났다. 곁에 잠든 염섭에게 이불을 덮어주던 그녀가 염섭의 곁에 누워 가만히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가 마치 노래를 부르듯 나직하게 말했다.

“조금 있으면 모두가 만나는 기라. 우리도 이제 편하게 잘 수 있는기라. 새 신랑 각시처럼 달콤한 꽃잠을 잘 수 있는기라. 미안하데이.”

스르르 일어난 귀남이 잠든 남편을 일별하더니 밖으로 홀연히 나갔다. 그녀가 결연한 발걸음으로 찾아간 곳은 발굴터였다. 밤이어서 발굴 인력들은 철수한 지 오래였다. 근처에 마련된 캠프 내 막사 한 곳에서 불빛이 새나오고 있었다.

흡사 유령처럼 나타난 귀남을 보고 동현과 정민이 놀랐다. 그들은 지식 밑에서 발견된 두루마기 목간을 살피고 있었다. 그 곳에 이두와 유사한 고대 문자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

“날 따라 오나라.”

그들을 이끌고 귀남은 발굴터로 걸어갔다. 대형 조명을 켜는 동현은 차마 두 모자 곁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형형한 눈빛으로 여기저기를 가늠하던 귀남이 한 지점을 보며 눈을 빛내며 가리켰다.

“여기에 잠들었데이. 여거에 묻혀 있데이.”

“누가요, 어머니?” 속삭이듯 정민이 물었다.

“가나의 영혼들!”

귀남이 가리킨 곳을 동현과 정민이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다. 점점 형태가 드러났는데 완전한 형태를 갖춘 순장고분이었다. 부장품을 비롯해 형체와 색깔을 알 수 없는 형겼들이 드러났다. 큰 항아리에 조심스럽게 쌓여있는 옹관묘가 드러났다.

수습한 미라들을 캠프 막사로 옮긴 동현과 정민의 이마는 땀으로 범벅이었다. 수습된 미라는 모두 세 구였다. 정민이 찬탄어린 눈길로 말했다.

“왕릉급 무덤이다. 이렇게 집단으로 순장된 무덤도 특이하지만...특히 이 세 구의 미라는 더 잘 보존돼 있어. 아마 꽤 높은 신분이었을 거야.”

“어느 왕의 무덤인 거야?”

“난해해서 해석이 더더질 것 같아.” 빛바랜 천을 보던 정민이 찌푸렸다. 귀남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정민과 동현에게 귀남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를 갖추어라... 이분은 월광태자이니라.”

귀남이 회한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이 천은 탄금의 침의였데이. 이렇게 빛바래 버릴 만큼 시간이 흘렀어도 기억난데이... 이 글은 탄금이 쓴... 연시인가라.”

귀남이 울었다. 잠시 후, 귀남의 입에서 천 오백년이라는 시간을 거스른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 7장 - 별리(別離)>

미소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눈물은 붉은 점이 있는 미소의 뺨을 번들거리게 했다. ‘가야의 왕비가 되기 위해 신라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문과 너 뿐만 아니라 네가 은애하는 삼맥종 태자님도 무사치 못하리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미소는 며칠 전 들판에서 꽃을 꺾어 귀 뒤에 꽂아주던 태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도 이 사실을 들었을까. 불행하게도 삼맥종도 가야에서 혼인동맹을 맺기를 원하고 하필이면 그 상대가 자신의 정인인 이찬의 여식 미소라는 사실을 전해듣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니 지소태후는 그런 태자의 반응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태자는 우리 신국의 기둥이오.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가야와 척을 지려 하오?”

부친인 법흥대제조차도 꺾지 못한 기골이 장대한 여장부 지소태후는 이미 삼맥종의 짝으로 사도를 점찍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일개 귀족 가문의 여식이 눈에 찰리 만부당했다. 주옥 도열하고 있는 신하들도 암묵적으로 삼맥종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저하... 이찬의 여식 미소를 대가야로 보내야 합니다.”

귀족 하나가 말했다.

“하고 많은 귀족의 여식 중 어찌 그녀를 보내야 한다는 말인가?”

“가야의 왕 이뇌왕이 사냥 중에 만난 이찬의 여식을 보고 크게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왕실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가야와 혼인동맹을 맺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아니되오.”

귀족이 비죽 비웃었다. 삼맥종은 열패감에 휩싸였다.

“고구려를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이 시국에... 백제와 왜랑 강력한 연대를 맺고 있는 가야국과 척을 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옵니다.”

“그녀가 내게 어떤 존재인 줄 정녕 모르고 아뢰는 소리인가?”

“한낱 여인 때문에 대 신라의 존망을 잊어버릴 셈인가?”

눈을 감고 있던 법흥대제가 꾸짖듯 태자를 바라보았다. 삼맥종은 고개를 숙였다. 그런 손자를 보는 법흥대제 역시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힘을 길러라... 더 이상 네 것을 뺏기지 않을 힘을...”

하지만 정인을 그대로 보낼 삼맥종이 아니었다. 천둥번개가 치는 암흑의 밤, 말을 탄 삼맥종과 미소가 칠흑같이 어두운 젖은 길을 달리고 있었다. 뇌우가 번쩍일 때마다 삼맥종의 등에 매달린 미소의 자그마한 몸집이 드러났다. 뒤쫓아 오는 말 발굽 소리 여럿이 들렸다.

삼맥종의 호흡이 가뻤다. 하지만 갑자기 뚝 끊겼다. 그들을 둘러싼 왕실 호위병들이 점점 압박하듯 좁혀왔다.

“어명이요. 이찬의 여식 미소는 곧 치러질 가야왕과의 혼인을 받들라 하오시오.”

“어명? 어명? 으하하하...하하하... 크으흑...”

태자의 허리를 움켜쥔 미소의 손아귀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갔다.

<8장 - 조우>

6년 후, 미소와 어린 월광이 정원에 앉아 있었다. 미소는 어린 월광의 통통한 손을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미소지었다. 까르르 웃는 월광의 모습을 아련한 눈길로 보던 미소가 꿈꾸듯 말했다.

“너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갑자기 미소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월광의 뒤로 이녀왕이 굳은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다. 전장에서 돌아온 듯 초췌하고 황폐한 표정이었다.

“폐하!”

“아무리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없다해도... 어찌 군왕이 돌아오는 줄도 모르는가?”

“망극합니다.”

미소를 쏘아보던 이녀왕이 월광을 번쩍 들었다. 월광은 자칫 울 태세였다. 그때- 이녀왕의 뒤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월광 또래의 어린 남자아이가 보였다. 그 아이를 보던 월광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런 월광의 모습을 보던 이녀왕도 만족스러운 듯 너털웃음을 쳤다.

“신라와의 전투에서 주워온 신라 유민의 아이요. 월광의 선물로 데리고 왔소.”

미소의 얼굴이 굳어졌다.

“왕좌에 오른 지 얼마되지 않은 신출내기 신라 삼맥종(*진흥왕)이 금관가야에 이어 우리 대가야를 정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오. 신라여인인 그대의 감회를 듣고 싶소만...”

미소의 몸이 흠칫 떨렸다.

“여인이 어찌 대사를 논하리오까?”

이녀왕이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돌아 나갔다. 이녀왕이 사라지자 월광이 우룩에게 다가갔다. 우룩을 향해 월광이 천진하게 웃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제법 청년티가 완전한 월광이 책을 읽고 있고, 그 옆에서 우룩이 오동나무를 자르고 끼워 맞추고 있었다.

“무얼 하느냐?”

“향기로운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만들 것입니다.”

“비파를?”

“아니예요. 열 두줄 현으로 천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악기를 만들 거예요.”

“가끔 네 세치 혀가 내뱉는 말이 나를 종종 즐겁게 하는구나. 내 이름 지어주련? 우리 가야의 가야에 줄악기이니 ‘고’를 붙여... 가얏고..어떠하냐?”

“가얏고... 가얏고...향내나는 이름이옵니다. 첫 곡은 태자님에게 올릴 것입니다.”

그때 시녀 하나가 황급히 월광에게 달려왔다. 술에 취한 이녀왕이 어머니의 침전에 들

었다는 전갈이었다. 최근 가야와 신라 접경지역에서 승전을 거둔 신라군이 의기양양하게 집결한 것 때문에 이녀왕이 대노했고, 종종 극심한 음주로 이어지곤 했다.

여느 때와 같이 술에 취한 이녀왕이 거칠게 미소의 침전문을 열고 패악을 부리고 있었다. 안절부절하는 시녀들이 월광이 온 것을 보고 안도했다. 하지만 쉽사리 월광은 침전문을 넘지 못했다.

“삼맥종이 이 가야국을 삼키려는 이유가 그대 때문인가? 삼맥종의 어떤 점이 좋았어? 응? 말해 봐... 말하라니까.”

“아랫것들이 봅니다. 저를 귀히 여겨주소서.”

어머니를 희롱하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은 월광의 얼굴을 어두워졌다. 조용히 되돌아 걸어갔다. 그런 월광의 걸을 우륵이 따랐다.

“우륵! 나는 현숙하고 아름다운 내 어미와 세상의 선과 미를 노래할 수 있는 악기들만 있으면 좋았다. 하지만 세상의 선과 미는 연약하다. 너 역시 전쟁고아로 이국의 노예로 팔려온 인생. 왜 세상의 밝음 뒤에는 어둠 역시 공존하는 것일까. 사랑 뒤에 미움이 도사린 것처럼...”

월광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런 월광을 보던 우륵이 가야금을 켜기 시작했다.

<9장 - 모욕>

미소의 병에 월광은 슬프면서도 화가 났다. 그는 왕이 머문다는 집무전으로 굳은 얼굴로 들어갔다. 노회한 눈빛을 가진 구신들과 이녀왕이 침입자를 보듯 왕자를 쳐다보았다.

“어마마마가... 편찮으신데... 아바마마께서는 한달 넘도록 찾지 않으셨습니다.”

“일국의 태자가 이렇게 유약해서야... 가야금과 어미 치마폭에서 아직도...쫓쫓쫓!”

“아바마마는 늘... 절 이렇게만 바라보셨습니다.”

“다음 장계를 올려라.”

“아바마마!”

한 노신이 이녀왕과 미소가 맺게한 신라와의 결혼동맹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녀왕은 살짝 눈을 감은 채 제지도 않고 경청했다. 다 들은 후 물었다.

“어찌 하란 말이더냐?”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구신이 음험한 눈빛으로 월광을 보았다.

“황비를 폐하시고... 새로운 국혼을 준비해야 한다고...”

월광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 이유를 다그쳤다. 노신은 노회한 눈빛을 흔들리지도 않은 채 월광에게 쏟아부었다.

“신라와의 전선에 우리 가야가 밀리고 있다는 소문에 민심마저 이반하는 시국입니다. 헌데 희한한 소문까지 나돌아 가야의 사기와 자부심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문?”

“아뢰옵기 황공하오나...저기 계신 태자마마가 우리 가야의 피를 잊지 않으셨다는...”

월광이 경악에 찬 눈빛으로 왕을 바라보았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거짓을 놀린 구신의 혀를 잘라버리라는 영을 내려야 마땅한 왕은 전혀 미동없었다. 그리고 월광은 알았다. 그 오랜 세월 왜 아버지가 자신에게 단 한번도 애뜻하게 바라보지 않았는지를....

월광, 경악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신하들과 이녀왕을 쳐다보다가...

“신라 삼백종과 현 황후는 나와 의 국혼 이전에 서로 정인이었다. 그러나 대신들의 의견을 따를 수는 없다. 가야의 왕비는 황후 밖에 될 수 없으니.... 새로운 결혼동맹을 위해서 차라리 월광과 신라와의 국혼을 추진할 것이다.”

월광이 비틀거리며 집무전을 나갔다. 웃고 있는 듯 온 몸이 비틀거렸다. 나지막히 뇌까리는 월광의 말에 이녀왕은 다시 눈을 감아 버렸다.

“이것이었습니다? 아바마마가 제게 그리 하셨던 이유가...”

혼례복을 입는 월광이 아무 표정없이 시녀들이 몸을 치장하는 대로 손을 벌리고 팔을 껴는 모습을 우륵이 안타깝게 쳐다보았다. 기뻐해야 마땅할 혼례일인데... 우륵은 마음 한켠이 찼다.

“어머니처럼 신라 여인을 내게 안기는 이 가야의 구신들과 왕은 나를 팔아 가야의 목숨을 구걸하려 한다. 내가 웃을 수 없는 이유다.”

“폐하의 환후의 위중하다 들었습니다. 아마도 후일을 도모하시려 한 것일 겹니다.”

“난 그의 아들이 아니다.”

“어쩌면 폐하께서는 태자 마마를 진심으로 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월광이 우륵을 바라보았다. 웬지 위로를 하려는 우륵이 기특했다.

“가르하구나. 하지만... 난 이제 사랑을 믿지 않는다.”

국혼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월광의 곁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본 우륵의 가슴 한켠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이름은 탄금이라 했다. 우륵의 눈은 허공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쿨럭거리며 겨우 자리에 앉은 이녀왕의 곁에서 미소가 슬픈 눈길로 월광을 바라보았다.

그날 침전에서 탄금이 묵묵히 앉은 월광에게 술을 건넸다. 월광은 한숨에 잔을 비운 후 탄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덤덤히 말했다.

“그대에게 내 어머니가 가졌던 슬픔을 주기 싫소. 혹 정인이 있었다면... 미안하오.”

탄금이 놀란 눈빛으로 탄금을 쳐다보았다.

“가야는 이제 쇠락의 기운이 엿보이는 왕국. 나는 이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될 수도 있소. 광영은 커녕 어쩌면 치욕과 아픔을 주게 될지도 모르겠소.”

“그 치욕과 아픔, 마마와 함께라면 달게 받을 것입니다.”

탄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월광이 탄금을 쳐다보았다. 탄금은 그 눈빛을 오롯이 받아냈다.

가야는 왕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이녀왕은 씩씩거리며 힘겹게 숨을 쉬었다. 그 곁을 미소와 월광, 그리고 탄금이 지켰다. 이녀왕이 월광에게 눈빛으로 다가오라 했다. 다가갔으나 월광은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는다. 월광은 아버지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만약 용서를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어머니일 것이다.

“날 용서한다고 말해다오. 신라와 고구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생각 해볼 참입니다. 제겐 폐하와 같은 신념이나 의무감이 없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소중한 사람을 뺏기는 아픔은 겪기 싫으니...어쩌면 지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월광은 어머니와 탄금을 쳐다보았다. 월광을 뿌리친 이녀왕의 손을 미소가 잡아주었다. 이녀왕이 천천히 숨을 거뒀다.

이녀왕이 죽자 미소는 출가를 결심했다. 월광이 만류했지만 미소의 얼굴에는 홀가분함이 떠 있었다.

"전 모든 것이 편합니다. 부디... 폐하도 편하셔야 합니다."

피를 부르는 왕좌에 오른 아들을 가여운 듯 바라보던 미소가 월광을 향해 합장했다. 월광은 안타까웠다. 신라와의 접전을 거루는 많은 전쟁에서 월광은 패했다. 병사들은 다치거나 죽었다. 도설지왕(*월광의 왕호)의 갑옷도 여기저기 헤졌다.

도설지왕은 이올어가는 가야국의 운명을 감지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10장 - 연모 >

전장에 나간 도설지왕을 기다리는 탄금의 뒷모습에 외로움과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하염없이 허공을 바라보는 탄금의 등을 홀린 듯 우륵이 쳐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우륵은 뭔가가 떠오른 듯 가야금을 꺼내고 통졌다. 천천히 탄금이 우륵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음률로써 전해지는 우륵의 마음을 깨닫고는 탄금은 울고 싶었다. 하지만 미친 듯이 보고싶은 것은 도설지였다. 전투가 더욱 격해지고 살육당한 가야 병사들의 시체가 산을 이뤘다. 도설지왕 역시 신라군영에서 쏜 화살을 맞았다. 낙마한 도설지를 그물을 던져 포획한 신라군은 그를 누군가의 발치로 끌고 갔다. 굴욕적으로 숙여진 도설지왕의 이마 아래로 눈물인지 땀인지가 똑똑 떨어졌다.

도설지왕의 눈에 박차를 단 신발이 보였다. 서서히 고개를 들자 차가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신라 진흥왕이 서 있었다.

가야궁에 유배된 도설지왕이 멍하게 앉아 있었다. 탄금이 들어와도 기척을 알아채지 못했다. 탄금의 연민어린 눈빛조차 보지 않는 왕이 탄금은 안타까웠다. 탄금이 사라지자 비로소 도설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달빛을 보고 한숨 짓던 탄금의 귀에 낮익은 가야금 곡조가 들려왔다. 우륵일 것이다. 탄금은 위로받듯 소리에 귀 기울였다. 우륵 역시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나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를 다 느끼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탄금은 눈물을 흘렸다. 우륵은 우는 탄금을 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왕의 여자였다.

"난 그이한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

우륵의 눈빛에 얼핏 부러움이 담겼다.

"폐하께서는 스스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실 것입니다."

같은 시각 왕좌에 미동없이 앉은 도설지왕의 눈빛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못 결연하기까지 했다. 그런 그에게 탄금은 쭈뼛거리며 다가갔다. 그녀를 도설지가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왕이 가여운 탄금은 바짝 그를 끌어안았다. 도설지가 망국의 왕으로 비탄하게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복권운동을 할 거라고... 결심을 밝히자 탄금은 자랑스러워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신은... 늘 폐하의 곁에서...폐하를 따를 것입니다."

도설지가 탄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걱정엔 찬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열린 문틈으로 서로를 탐닉하는 둘의 모습을 우륵이 이끌거리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린 미소가 되돌아서서 누군가와 마주쳤다. 그를 바라보는 미소의 표정에 미묘한 떨림이 스쳤다. 진흥왕이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미소를 쳐다보았다. 미소는 마치 진흥왕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요히 쳐다봤다. 진흥왕의 안색이 들떴다.

회자정리라...미소는 언젠가는 만나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진흥왕은 그런 미소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꼈다.

"신라의 여인으로 산 세월보다... 가야 왕비로 산 세월이 더 기네요."

"그대가 어떻게 이 가야궁에서 살았는지...다 들었다. 지금이라도 내게 다시 돌아오면..."

"전 부처님에게 귀의했습니다."

미소가 뿌리친 팔을 늘어뜨린 진흥왕의 얼굴은 상처받은 표정이었다. 미소가 함장을 하고 멀어졌다.

가야 옛 구신들이 아닌 젊은 관료들에게 복권운동을 지시했던 일이 탄로났다. 그리고 그 일은 우륵이 꾸민 일이었다. 그 일을 신라에 고변하기 전 우륵은 탄금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구걸했다. 켄한 눈빛으로 가야금을 껴안고 있는 우륵의 모습을 본 탄금은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연민하지 않으려 애썼다.

"들어주지 않는 음악은 사랑받지 못하는 정인의 처지와 다를 바 없지요."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 탄금을 향해 야속하다는 듯 말하는 우륵을 탄금은 외면했다.

"너를 갖고 장난친 적 한번도 없다. 왜냐하면 단 한번도 내 마음에 네가 들어온 적 없었다."

절망한 우륵이 가야금을 부수기 시작했다.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선함은 없었다. 아름다운 음률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면 미가 아니었다. 탄금의 뺨이 가야금의 파편에 맞아 피가 흘렀다. 깜짝 놀라 탄금의 손을 잡은 우륵이 그 피를 입으로 핥았다. 그런 우륵은 탄금은 소스라쳐서 밀어냈다. 그리고 뺨을 때렸다.

"감히... 왕의 여자인 나를... 모욕하다니..."

뒤돌아 서서 가는 탄금의 등 뒤에서 우륵이 씹어빨듯 말했다.

"분명... 후회하실 것입니다."

<11장 - 순장>

그날 신라궁에 낯선 자가 찾아들었다. 유폐된 가야 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가졌다고 한 이는 바로 우륵이었다. 그런 우륵을 맞이하는 진흥왕의 얼굴은 덤덤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진흥왕을 바라보던 우륵이 무릎을 꿇었다.

"폐하... 강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았다. 우·륵·"

진흥왕의 뜻을 받은 우륵이 신라군을 이끌고 가야궁으로 쳐들어갔다. 그때 도설지와 젊은 관료들이 지도를 갖고 뭔가 비밀스럽게 모의하고 있었다.

신라군 대열 맨 앞에 인도하는 이는 우륵이었다. 갑옷 무장을 한 우륵은 바람처럼 가야궁 깊숙히 적을 인도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한 도설지가 신하들에게 빠져나갈 것을 지시했지만 때는 늦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신라군들에 의해 포박당하는 무참한 신세가 되었다.

또다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은 도설지의 시야에 신라장수의 발이 보였다. 몸을 떨며 고개를 천천히 들자 그 곳에 뜻밖에도 우륵이 서 있었다.

"우륵... 어찌...네가....형제같이 자란 네가..."

"형제같은...노예?"

도설지의 얼굴을 우륵이 잔인하게 갈겼다.

"전 신라의... 아들입니다. 당신과 내가 형제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차라리.... 날 죽여라."

"곧 신라궁으로 압송될 것입니다. 왕을 풀어주어라. 그는 결코 비굴하게 도망가지 않을 것이니...."

우륵의 말을 적중했다. 포승이 풀려도 도설지는 무력하게 왕좌에 앉아있었다. 그의 모습은 외로워보였다. 멎었던 도설지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다.

잠시 후 우륵이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었다. 왕이 머무는 침전의 문을 연 우륵은 경악했다. 눈을 부릅뜬 채 목에 단검을 꽂고 자결한 월광의 시신이 우륵을 고요히 쳐다보고 있었다. 우륵이 다가가 월광의 눈을 감겨 주었다. 우륵도 눈을 감았다.

황후전으로 간 우륵은 문 앞에서 멈칫했다. 옷 여기저기 피가 튀어 있었다. 탄금이 눈부신 가채를 하고 치장하고 있었다. 시리도록 눈부신 미소를 머금고...

"왕이.... 죽었소. 당신은 기쁘오? 슬프오?"

"망국의 왕비라는 이 무거운 허울을 벗어버릴 좋은 기회라 여길 뿐입니다."

탐색하듯 바라보던 우륵은 맥이 풀렸다. 그녀의 말이 거짓이든 진정이든 중요치 않았다.

"참으로 여인의 마음이란 알 수가 없소."

"여인의 마음은 주인이 바뀌면 바뀌는 법입니다. 저는 본디 신라의 여인이었사옵습니다."

탄금이 천천히 우륵에게로 돌아섰다. 아름다웠다. 우륵은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도 좋다고 그 순간 생각했다. 탄금의 입술이 우륵의 입술에 닿았다. 짐승의 시간이 펼쳐졌다.

걱정이 지나간 자리 위에 우륵이 기분좋은 표정으로 자고 있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탄금이 차분하게 하얀 침의를 걸치고 앉아 붓과 종이를 꺼냈다.

그녀는 자신의 넓게 펼쳐진 치마 위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 시 쓰기를 마쳤을 때 우륵이 깨어나 탄금을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그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감돌았다.

"제가 그리도 좋으십니까?"

말해 무엇하리. 생각만 해도 우륵의 가슴은 미어졌다.

"그대를 연모합니다, 앞으로도... 죽어서도...."

"그렇습니까? 잘 되었군요."

빙긋이 웃던 탄금이 단도를 꺼내 목을 겨누었다. 우륵의 눈이 커졌다.

"날 사랑해야 정인을 잃는 아픔이 뭔지 알 테니까... 난 신라의 여인이 아니라 가야 왕비다."

목을 찔렀다. 이미 목에서는 팔팔 피가 솟았다. 우륵이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그런 그를 탄금이 연민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더 이상... 원망하진... 않겠다. 가여구니까... 우리... 모두... 어리석고... 그래서 불쌍하..구..나."

탄금이 절명했다. 우륵이 혼이 빠진 표정으로 절규하기 시작했다.

도설지와 탄금의 죽음을 전해들은 미소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그런 그녀를 진흥왕이 아픈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끝내 부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인간으로 눈물 흘리는 저를 용서하소서."

예불을 다 올린 미소가 진흥왕을 안타깝게 쳐다보았다.

"당신도, 나도...너무 가엽군요."

"자결할 줄은 몰랐소. 미안하오. 금관가야처럼 어차피 대가야 왕과 왕족들에게도 땅과 작위를 줄 예정이었는데..."

"그 아이를 모욕하지 마세요. 시리도록 맑은 아이니까...당신처럼..."

진흥왕이 의아해했다.

"당신 역시 가여우니까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도 무겁게 짊어지고 갈 천형을 받았습시다."
진홍왕의 눈에 의혹이 가득 찼다.
"당신이 죽인 가야왕 도설지는 바로... 당신의 아들이니까요."
진홍왕이 무너지듯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월광태자와 탄금의 국장이 열리는 곳에 백의를 입은 많은 가야 백성들이 운집해 있었다. 통곡의 소리가 넘실대는 그곳에 우륵이 나타났다. 많은 살아있는 귀족들과 시녀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장의식이 시작됐다. 우륵은 멍한 표정으로 무덤으로 들어가려 했다. 노기 띤 백성들이 제지했다. 그는 찢어죽여 마땅한 신라의 세작이었기 때문이다. 끝까지 왕을 욕되게 하는 우륵을 용서할 수 없었던 백성들이 우륵을 때리기 시작했다.

찢어지고 피가 터진 우륵이 꺾꺾 울기 시작했다. 미소가 손을 들어 백성을 제지했다. 그녀는 피칠갑을 한 우륵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가연은 것! 형제를 잃고... 정인을 잃었구나... 길을... 터 주어라."

머뭇거리던 백성과 신하들이 길을 터주자 천천히 무덤 안으로 우륵이 유령처럼 들어갔다. 석실의 문이 닫혔다. 깊은 어둠이 숨죽이기 시작했다.

<12장 - 해원(解冤) >

이야기를 마친 귀남의 손을 염섭이 잡고 있었다. 곧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는 듯 간간히 혼수상태가 찾아들었다. 정민이 눈물을 흘리자 은수가 정민의 몸을 쓰다듬어 주었다. 곁에 앉은 동현도 주루룩 눈물을 흘렸다.

염섭이 그런 동현의 어깨를 툭툭 쳤다. 오직 동현만이 그 깊은 기억을 끄집어 냈던 것이 못내 가엽고 불쌍해서였다. 염섭은 정민의 한과 후회가 가장 커서 그런 것일 거라 추측했다. 두루마리에 적힌 탄금의 시가 동현을 불러냈을 것이다.

아마도 동현만이 이 기억을 혼자 평생을 짊어지고 가게 될 것이다. 염섭이 그것이 안타까웠다. 이 생의 삶도 가볍지 않은데 과거의 기억까지 짊어져야 하는 동현의 운명이...

"전 여기를 떠날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동현이 속삭였다.

"그래... 이젠 너도 편해져야 하니까..." 염섭도 속삭였다.

귀남이 눈으로 염섭을 찾았다.

"임자... 우리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소. 내 잘할게..."

염섭의 말을 들은 귀남이 스르르 미소지으며 눈을 감았고 긴긴 잠에 빠져들었다.

귀남의 장례를 치른 후 동현은 혜진과 함께 서울로 떠날 준비를 했다. 동현이 말없이 정민과 은수를 바라보았다. 몇 천년을 이어온 그들의 사랑은 아직도 동현을 아프게 했다. 정민에게 인사한 후 동현이 차에 오르기 전 은수에게 돌아서서 그녀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허은수... 이 나쁜 기집애....난 기억하는데... 넌 늘 기억 못하지?"

은수의 눈이 동그래졌다.

"화신관 꼬맹이 몰라? 맨날 너랑 모래성을 쌓으면서 놀았는데..."

"당신이... 그 때 그 아이...?"

은수를 와락 포옹했다가 푼 동현이 재빨리 차에 올랐다. 그런 동현을 힐끗 본 혜진이 말

없이 운전석에 올랐다. 떠나는 동현의 차를 정민과 은수가 손잡은 채 배웅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들은 대화하지 않았다. 교통방송만 시끄럽게 울렸다.

‘요즘 밤하늘을 보면 유난히 빛나는 별이 있는데요, 이것은 별이 아니라 화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와 가까워지고 있는 이 화성이 지구와 가장 근접한 시점은 바로 오늘 오후 6시 51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마치 두 개의 달이 뜬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될 텐데요...’

혜진이 다른 데로 주파수를 맞추려 하자 동현이 제지했다. 귀를 기울이는 그의 얼굴은 왠지 심각하고 불안해 보였다.

“두개의 달?”

그때 하늘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드는 동현과 그런 동현의 행동을 좇아 고개를 든 혜진은 추월하는 차량을 보지 못했다. 귀가 찢어지는 파열음과 함께 두 차량이 충돌했다.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동현의 두 눈에 화성과 달이 담겨졌다.

고령 가야 고분을 딸아이와 찾은 동현과 혜진은 딸이 가르킨 곳에 전시된 발굴 미라를 바라보았다. 딸의 눈을 황급히 가리는 동현을 혜진이 만류했다. 딸아이도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여보... 우리 딸 강하거든... 교육상 좋고...”

“아빠, 이게 옛날 사람이야?”

“응,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무덤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어...음...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같이 들어간 거야.”

혜진이 동현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얼버무렸다. 동현은 흰 침의를 입은 여인을 그려놓은 초상화 앞에서 뉘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쁘다... 그치?”

“내 눈엔... 슬퍼 보여.”

한참을 여인의 초상화를 바라보던 동현이 딸아이를 찾으러 나가자 이번에는 혜진이 그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당신인가요? 그에게서 유독 고령에 내려갔던 기억만 사라지게 한 것이... 좀 쉬라고...더 이상 아파하지 마라고... 그런 거죠? 누가 말하더군요. 사람은 잊고 싶은 기억을 잊는다고... 잃어버린 기억의 자리는 이제 새로운 기억으로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끝)